	한국사	Ⅲ.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34차시 : 독립을 위한 노력	학번	
	임종일 T		이름	

★건국을 위한 준비 - 대한민국임시정부

#모든 단체가 대한민국임시정부로

대한민국임시정부

: ()의사 의거 이후 일제의 탄압으로 상하이를 떠나 창사, 광저우 등 중국 각지를 거치게 됨.

[대한민국임시정부와 일본의 술래잡기 from 상하이 to 충칭]

중일전쟁이 일어나자

김구, 한국국민당,

조소앙, 한국독립당 (민족혁명당에서 이탈) ,

지청천, 조선혁명당 등

민족주의 계열 3개 정당은 [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] 결성

이후, [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]에 속한 정당이 합당하여

[한국독립당] 결성

(위원장 : 김구,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집권당 역할)

#1940년, 충칭에 정착한 임시정부, [충칭 임시정부]

-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단일지도체제 마련

- 1942, 민족혁명당 출신 김원봉 등 합류

★1941, 태평양전쟁 직전, 대한민국건국강령 발표

()의 ()에 기초하여

민주공화정 수립, 토지개혁, 대기업국유화, 무상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있음.

-> 대한민국정부수립, 제헌헌법제정에 큰 영향

#한국광복군

대한민국임시정부 - 1940, 한국광복군 창설

-사령관 : 지청천

-이후 김원봉의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합류

활동

-1941, 태평양전쟁 이후 일본에 대일선전성명서 발표

-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음

but, []으로

중국군사위원회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.

-대일항전 직접전투에 참여


-일본군 포로심문, 회유방송 등 심리전에 큰 성과

-인도, 미얀마 등 전선에 공작대 파견 - 영국군과 공동작전

-국내진공작전(독수리작전)계획 but 일본의 빠른 항복으로 실패

[임시정부 이동]



	한국사	Ⅲ.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34차시 : 독립을 위한 노력	학번	
	임종일 T		이름	

★건국을 위한 준비 - 조선독립동맹, 조선의용군

-1942, in 화북 / 한국인 사회주의자 중심 - 조선독립동맹 결성

- '연안'으로 이동해 있던 [조선의용대 화북지대] 를

[조선의용군]으로 개편

-조선의용군은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과 함께 대일항전을 벌임

-보통선거에 의한 민주공화국수립, 남녀평등, 토지분배, 의무교육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건국강령 발표

★건국을 위한 준비 - in 국내

- 여운형 중심 - [조선건국동맹] 결성

- 공출반대운동,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합작전계획, 강령발표

★건국을 위한 준비 - in 미주

-in 하와이 - 대한인국민회 등 미주지역 9대 한국인단체가 연합

-> [재미한족연합위원회] 결성

-모금활동 - 임시정부를 재정적으로 후원

- 태평양전쟁이후 한국인 신분증 발급

-in LA, 한민국방경위대(맹호군) 조직

-in 워싱턴, 외교위원회 설치

-with 미국, 냅코작전 계획 but, 일본의 항복선언으로 실행 X

★★★한국문제를 세계인들이 논의하다 - 카 알 포 ★★★

1943, 카이로회담

: 한국의 독립이 최초로 논의 (in due course)

(태평양 전쟁이후 어떻게 해야할까?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독립이 최초로 논의됨)

1945, 독일패망 임박 - 알타회담

-소련의 대일전 참전 결정

-패전국과 해방국에서

민주세력에 의한 임시정부구성, 자유선거 실시라는 원칙 마련

1945, 7월, 포츠담회담 -(독일항복 이후)

-전후 독일 처리 문제

-일본과의 전쟁 방안 논의

-일본에 무조건 항복 촉구

-카이로 회담 모든 조항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



3대 강국은 한국민의 노예 상태에 유념하여 적절한 시기에(in due course)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될 것을 결의한다.

- '카이로 선언' (1943) -

1. 국민들의 모든 민주적 요소는 광범위하게 대표하고 최단 기일 내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자유선거에 의한 정부를 수립할 것을 약속하는 정권의 수립

2.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유선거 실시의 편의를 도모할 것

- '알타 협정' (1945) -

6. 우리는 무책임한 군국주의가 세상에서 구축될때까지는 평화, 안전, 정의의 신질서가 존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바이므로 일본 국민을 기만하여 세계 정복의 허영을 종용하는 과오를 범하게 한 권력 및 세력은 영구히 제거되어야 한다.

8.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, 일본의 주권은 혼슈, 홋카이도, 규슈, 시코쿠 및 연합국이 결정할 여러 작은 섬에 국한됨.

- '포츠담 선언' (1945) -